**청년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

-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읽고

지금 한국은 대통령의 정치 스캔들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보자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대기업들에게서 강제로 징수하여,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국민연금의 자금을 특정 기업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등의 상상도 할 수 없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일들에 대한 분노로 많은 대학 들에서 학생과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각계각층의 분노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와서, 최근 시위에는 21세기들어 볼 수 없었던 100만이라는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이러한 분노는 물론 대통령의 정치스캔들을 향한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든다는 이유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 이런 현실과 이 책을 연결시켜보고자 한다.

먼저 저자는 책의 앞 부분에서 왜 우리나라가 불평등한 분배상태에 머무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불평등하고 살기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실제로 그 상태가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지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다양한 통계자료의 인용을 통해서 실제로 얼마나 분배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우선,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거듭하면서 점점 더 소득 분배가 불평등해지고 있다. 책의 통계에 따르면, 1979년에 상위 10%의 전체 소득 비중은 27%였지만, 2012년에는 이 수치가 44.9%로 증가한다. 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런 분배의 문제는 개인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책의 한국은행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국민 총소득 증가율이 5.5%인데 비해 가계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은 3.6%에 불과하다. 하지만 기업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은 8.1%라는 거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기업에게만 치중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위의 사실들을 보면 지금까지 기업의 성장위주로만 경제 정책을 펴왔던 우리 정부의 판단이 크게 잘못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가 경제성장을 하려는 이유는 국민이 더 윤택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자는 다른 관점에서도 현재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효과를 개인들이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이 효과조차도 극소수에 불과한 초 거대 대기업에 고용된 사람들만 누린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중소기업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4.6%, 대기업은 6.7%인데 비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포스코의 실질임금 상승률의 평균은 34.4%에 이른다.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률이 20.9%에 이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극소수에 해당하는 위 4개의 대기업 회사들에 다니는 사람들만 경제성장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리고 있고, 나머지 일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경제성장의 효과를 절반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저자는 이런 불공정한 분배에 대한 해답으로, 세금을 제원으로 하는 복지를 통한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분배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기업이 내부유보금으로 쌓아 놓고있는 돈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하게 분배한다면, 중소기업들과 가계에 그 부가 분배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과정속에서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세대인 2∙30대 청년들을 미래 세대라고 칭하면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미래 세대가 이끄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의 현실에 대한 분석에는 공감하지만, 후반부의 청년 세대에 관한 이야기에는 반박하고 싶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기성 세대가 만든 것이다. 지금의 기성세대는 민주화를 거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얻었고, 그때부터 다양한 정치, 경제 분야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왔다.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 낸 결과를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지금 끊임없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박근혜 게이트이다. 그런데 기성세대가 이렇게 망쳐 놓은 나라를, 아직 경험과 배움이 부족하고 미숙한 청년들에게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 회피라고 생각한다. 기성 세대가 먼저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 나아가야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아직도 많은 여당 정치인들은 아무런 깨달음 없이 과거를 반복하고 있으며, 여당 정치인들 또한 한 목소리를 내서 세상을 바꾸려 노력해야 할 상황에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산기를 두들기며 자신들의 이익을 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위 주장에 대해, 기성세대를 버리고 청년 세대의 힘으로 개혁을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는가 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굳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많은 혁명들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개 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3포세대, 88만원 세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청년 세대에게는 그 별칭에서 드러나듯 당장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이다. 30년전의 대학생은 학점이 좋지 않아도, 영어점수가 좋지 않아도, 대외활동이 없어도, 지금처럼 취업을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단순히 수업 출석에 목숨을 걸필요가 없었고, 공부를 하기위해서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틀어박혀 있을 필요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많은 책과 신문을 읽고, 세상을 탐구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세대에게는 그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광화문에서 시위를 해도 시험이나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면 나갈 수 없다. 그 시간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다른 사람들 과의 경쟁에서 뒤쳐진다면 지금 청년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목표인 취업에 다가 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암울한 상황속에서 단순히 청년 세대에게 정치에 참여하려 노력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고 말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면, 기성세대는 지금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처럼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청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